

구원을 부르는 올바른 믿음, 섬김

(사회봉사)

이만식 << 장로회신학대학교 / 사회복지 전공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한국 교회는 ‘Again 1907’이라는 구호 아래 평양 대각성 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1907년에 일어났던 성령의 은사를 통한 부흥이 우리나라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다. 이보다 2년 앞선 2005년에는 한국 교회의 결집된 힘을 외부에 보여 주고 향후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운동을 초교단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손해 보기 운동’, ‘교인 포기 운동’, ‘수평이동으로 인한 교인 수 증가 반대운동’ 등을 통하여 기독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계의 자성운동과 사회봉사를 통한 이웃 사랑 실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눈총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최근에는 기독교 장로 대통령으로 인한 종교 편향 비판을 속절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아픔도 겪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오늘의 한국 교회는 불신자(the unchurched)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the churched)의 권태적인 신앙과 봉사 기피 등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성장 내지 성장쇠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세기를 돌아볼 때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빛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는 그들의 선교적 사명과 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막연히 느끼고 있던 위기의식은 교세 감소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인구현황에 의하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전체 종교인구는 1995년에 비해 2.4% 포인트 증가했으나 개신교 인구는 1.4%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약 14만 3천 명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불교는 40만 3천 명이, 천주교는 무려 219만 5천 명이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목회자와 신학자를 포함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실제적인 사회조사에 기반을 둔 내용을 소개하고 섬김의 필요성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변해야 할 점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비신앙인 사이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다(<표 2-1> 참조). 우선 목회자의 경우,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26.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이 ‘양적팽창과 외형 치중’(25.2%)이었으며, 그 다음이 ‘세속화’(24.5%)였다. 신앙인의 경우에는 ‘양적팽창과 외형 치중’(23.6%), ‘교파 많고 단합이 안 됨’(21.7%),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20.7%) 순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신앙인의 경우는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24.7%)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

하고 있으며, 다음이 '양적팽창과 외형 치중' (22.5%)이었으며, 세 번째가 '교파 많고 단합이 안 됨' (16.5%)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평신도 신앙인, 비신앙인 모두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자기 교회 중심적'이며 '양적 팽창과 외형 치중'을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적이고 양적 팽창과 외형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여기에 '섬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표 2-1〉 한국 교회의 문제점

구분	목회자		신앙인		비신앙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양적팽창과 외형 치중	38	25.2	116	23.6	113	22.5
교파 많고 단합이 안 됨	13	8.6	107	21.7	83	16.5
자나치게 자기교회 중심적	40	26.5	103	20.9	124	24.7
세속화	37	24.5	92	18.7	67	13.3
목회자의 사리사욕과 이기심	10	6.6	27	5.5	55	10.9
실제 생활에 방항제시 못함	8	5.3	28	5.7	25	5.0
사회봉사와 구제 사업의 등한시	3	2.0	10	2.0	17	3.4
기타	2	1.3	9	1.8	19	3.8
합계	151	100.0	492	100.0	503	100.0

출처: 「제2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발표 논문

이들에게 다시 한국 교회가 변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말씀 위주의 삶' (30.5%)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으며 다음이 '자기 교회 위주에서 탈피' (16.6%), '세속화로부 터 탈피' (13.9%) 순이었다. 신앙인들 역시 '말씀 위주의 삶' (31.6%)이 가

장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다음이 '외형에 치우치는 것을 지양' (15.6%), 그 다음이 '교과 통합 및 교과 축소' (15.0%) 순이었다. 반면에 비신앙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자기 교회 위주에서 탈피' (22.1%)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으며 다음이 '외형에 치우치는 것을 지양' (18.9%), '교과 통합 및 교과 축소' (13.1%) 순이었다(<표 2-2> 참조). 목회자와 신앙인 모두 한국 교회가 변해야 할 점에서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 '말씀 위주의 삶' 이라고 답한 대목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2-2〉 한국 교회가 변해야 할 점

구분	목회자		신앙인		비신앙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교과 통합 및 교과 축소	12	7.9	74	15.0	66	13.1
외형에 치우치는 것 지양	16	10.6	77	15.6	95	18.9
하나님 말씀 위주 생활	46	30.5	156	31.6	36	7.2
사회봉사 적극적	12	7.9	48	9.7	84	16.7
목회자의 자질 향상	19	12.6	28	5.7	53	10.6
세속화로부터 탈피	21	13.9	65	13.2	57	11.4
자기 교회 위주에서 탈피	25	16.6	46	9.3	111	22.1
합계	151	100.0	494	100.0	502	100.0

출처: 「제2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발표 논문

지난달 20일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이하 '기윤실')가 발표한 내용에도 위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기윤실에 의하면, 개신교가 신뢰받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활동**으로는 '봉사 및 구제활동(47.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29.1%)',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12.5%)로 나타났다. 또한 개신교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개

선해야 할 점으로 '교인과 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일치' (4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타종교에 대한 관용(25.8%), 사회봉사(11.9%)였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윤실의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보이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봉사 및 구제활동'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고 교인과 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이 불일치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2-3> 참조).

<표 2-3>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사회적 행동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봉사및 구제활동	476	47.6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291	29.1
환경 인권 등 사회 운동	215	21.5
학교 유치원 운영 등 교육 활동	71	7.1
문화 예술 활동	30	3.0
모름/무응답	6	0.6

출처: 기윤실, 「2008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보고 자료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교회의 헌금사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금 사용에 관한 설문에서 목회자들은 헌금의 50.0% 이상을 '교회 운영 및 유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신앙인들은 '사회봉사/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회 운영 및 유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37.1% 대 34.0%) 나타났다 (<표 2-4> 참조).

〈표 2-4〉 현금 사용

구분	목회자		신앙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교회 운영 및 유지	82	54.7	167	34.0
사회봉사/ 구제	16	10.7	182	37.1
국내 선교/ 농어촌 교회 지원	33	22.0	60	12.2
교회 교육	12	8.0	47	9.6
해외 선교 지원	4	2.7	24	4.9
기타	3	2.0	11	2.2
합계	150	100.0	990	100.0

출처: 「제2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발표 논문

위에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 목회자를 포함한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가 느끼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건강한 교회’로 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생각한다.

3.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섬김

마태복음 25:31-46(핵심구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앞서 언급한 사회조사에서 비신앙인을 포함한 신앙인과 목회자 모두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말씀 위주의 삶’이나 ‘언행일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며, 해결책으로는 ‘봉사 및 구제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교회가 왜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늘 갖는 질문들이 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로 ‘삼위일체’나 ‘구원’과 같은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근대 이후 특히 2번의 세계전쟁을 치르고 나서 맹목적인 과학만능주의에 대한 배신감과 추상적인 신앙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윤리적이면서 실천적인 내용의 종교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과학의 무서움으로부터 기독교가 진정으로 품고 있는 ‘따뜻한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의 본문 내용에 제목을 단다면 ‘마지막 심판 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기독교인들이라면 구원은 단지 믿음과만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신칭의’(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참여’나 ‘실천’이 전혀 배제된 자기최면식의 ‘고백’이라고 쉽게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근대 이후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진정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복음의 많은 내용들이 교리적으로 추상화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심판의 내용인 땅에서의 삶이 마치 참된 ‘이데아’나 ‘본질’을 향한 허상이나 재료로 전락해 버렸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내용은 “믿음 있는 자여 구원받아라”라는 식의 내용이 아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대상은 바로 ‘내가 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에,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구원의 손길을 준 자’들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는 40절에서 잘 설명하듯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예수 스스로의 자기동질화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선행’도 필요한가

라는 진부한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분명히 선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선 영벌(46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물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46절을 읽을 때 전혀 그런 공포스런 뉘앙스로 이해하지 않겠지만).

예수께서 영생의 축복을 선물하시는(이것도 역시 46절) 선행의 대상은 수천수만의 가난한 자들이 아니다. 즉, 내가 주위의 상당수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아만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 대상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다. 그것도 배고플 때 밥 주고, 목마를 때 물 주는 식의 자그마한 정성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이 이토록 예수에게서 강조가 된 이유는, 아마도 그러한 선행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에서 비롯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분명히 머리 좋은 이들의 고차원적인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민감하게 봐야할 점은, 그 선행의 내용이 양(量)이나 특정한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굳이 ‘영생’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자하신 말씀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조건 없는 섬김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섬김을 감히 예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예수의 윤리적 명령이나 구원받은 이들의 도의적인 책임의 차원이 아니다. 섬김은 바로 영생에 대한 근거이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형이상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아닌, 바로 구체적인 현장의 삶에서 ‘섬김’으로 나타난 믿음인 것이다.

4. 사회봉사적(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본 섬김의 당위성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일 즉, 사회봉사(사회복지) 실천은 다음과

같은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삶 역시 크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섬김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의 해소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사회(risk society)에 직면했다. 그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정체 내지 감소, 가족해체에 따른 편부모 가구의 증가,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 결과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연쇄적으로 사회봉사(사회복지)의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공급측면에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하에 관철되는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의 결과는 '20 대 80의 사회' 혹은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winner-take-all society)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한 인위적 조정 기제가 발동되지 않는다면, 소수에 대해 부의 집중과 다수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우리나라도 이미 세계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편입된 이상, 양극화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1977년 경제위기에 구조조정과 대외 문호개방을 기조로 대응했던 과정에서 양극화 정도가 가속화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은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다.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성장 동력의 고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 의미의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노동력의 재생산 구도를 악순환의 고리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건강한 가족구도가 무너지고 아동과 청소년

이 사회의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사부담에 짓눌리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력 보전 및 회복기능은 상실되고 있다. 단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서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취약 계층과 가정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한다.

3) 더불어 사는 복지권 의식의 확립

서구의 선진 국가들은 20세기 초반부터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복지국가를 출범시켰다. 이들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확립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정의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실현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하여 복지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가복지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나만 잘살면 된다는, 내가 노력하여 번 것에 대해 누가 간섭하느냐 등의 이기주의 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공성 중심의 인권의식이 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늦게라도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출발점이 곧 사회복지의 실현이다.

5. 나가는 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섬기러 오신 예수에 의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이다. 우리도 성육신하신 예수처럼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만 한다.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보다 전문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교회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예배와 사회봉사(사회복지)라는 두 주제는 서로 다른 형태이면서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다.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수직적 관계라면, 사회복지지는 그 신앙의 수평적 관계이고, 예배가 모이는 교회의 형상화된 헌신이라면 사회봉사는 흩어지는 교회의 형상화된 헌신이다.

예배 없는 사회봉사는 값싼 휴머니즘의 발현일 뿐, 궁극적으로 보면 자신과 사회를 구원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개입 없이 구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한편 사회봉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홀히(mocked) 여기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뿐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이 둘은 결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민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시들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표시는 사랑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5).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의 사랑이 둘 다 필요하다. 거절당하거나 또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말로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섬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결국 사회를 위한 것이고, 사회의 구원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으며, 섬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미래 교회에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섬김은 교회의 생존의 충분조건인 것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한국 교회에 남은 일은 섬김의 실현이며, 교회의 섬기는 사명은 미래 사회에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위스의 개혁신학자 칼 바르트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은혜의 즐거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결심한 자”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은 많이 하면서 막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 간디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대로 산다면 인도에 힌두교 신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인도의 이 위대한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개념에는 깊이 매료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본 후에 그는 크게 실망했다.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간디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흥미진진해졌다가도 막상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보고는 실망해서 뒤로 물러난다.

우리 가운데는 그들에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세요”라고 말하는 신실한 자들이 존재한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정신을 번쩍 차릴 만한 진실이 하나 남아 있다. 우리가 받아들여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우리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예수라는 것이다. 무디(Dwight L. Moody)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보는 서신(편지)이라고 말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거룩히 구분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죽어 가는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고후 3:3).

∴ 이만식 연세대학교(B.A.)와 미국 Norfolk 주립대학교(M.S.W.)를 나와 미국 Columbia대학교(D.S.W.)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있다.